

'94 제1·2검정소 우수농장상 수상농장

활천농장

취재 : 추 용 진 기자

본회 제1·2검정소에서 시행한 '94년 종돈능력검정 우수농장상을 각각 수상한 활천농장(대표: 이대호,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682)은 주위에 반경 10km 이내에 타농장이 없는 청정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활천농장 대표 이대호 사장(좌)과 이원형 농장장(우)

지난 2월 20일, 3월 6일에 제1검정소와 제2검정소에서 우수농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활천농장은 본회 제1·2검정소가 지난해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한 농장을 대상으로 챔피언돈 선정 횟수와 선발지수, 검정합격두수, 검정합격률을 종합해 판정한 결과 각 209.2점과 252.5점을 획득해 우수농장의 영예를 안았고 '93년도 양검정소 최우수농장상과 '92년도 최우수농장상, 우수농장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종돈장이다.

한편, '92년 12월에는 본회 제1검정소 100회의 경매기간동안의 집계에서 최다 최우수검정돈 농장상을 받은 활천농장은 최고의 고능력돈을 생산하기 위해 위생에 주안점을 두고 청정지역에서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김해에서 '89년에 하동으로 종돈장을 이전하여 신축했다.

활천농장은 대지 3만평과 건평 700평으로 4천여두의 규모를 이대호사장과 9명의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관리하고 있다.

돈사는 원치커텐을 설치한 개방식과 톱밥발효돈사로 되어있으며 분뇨처리는 분뇨차를 이용하여 주위의 과수원에 공급하고 있어 축산분뇨의 비료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89년에 현 위치인 경남 하동에 20여 억원을 투자해 종돈의 특성에 맞는 종돈장을 신축하고 전량 계통 조성된 원종돈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최우수 3회와 우수농장 6회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대호사장은 활천농장이 인근에 돈사가 없는 청정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분만사는 하루에 1번 그 외 돈사는 2일에 1번씩 소독을 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7년째 PED나 TGE 같은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의 종돈개량에 대해서 이대호사장은 "철저하게 부계, 모계를 분리해서 전문화 된 계통으로 나뉘어야 하고 검정 또한 부계쪽으로 치우치는 검정이 아닌 부계와 모계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어서 "정부가 육종사업을 주도하여 핵돈화 하여 외국종돈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돼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